

테러 현장 극한의 공포를 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가다

〈2〉 모스토파 사르와르 파루키 감독 '새터데이 에프터눈'



2016년 방글라데시의 한 식당에서 테러리스트가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외국인 을 포함한 30명의 인질을 붙잡아 두고 경찰과 대치를 이뤘지만 끝내 사망한다. 모스토파 사르와르 파루키 감독은 이 사건을 토대로 자신의 7번째 장편영화 '새터데이 에프터눈'을 제작했다. 그는 지난 2009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부산국제영화제 참여다. 그간 코미디와 멜로 영화 위주로 찍었던 그는 이번에 첫 스릴러 장르에 도전했다. 감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화를 그대로 실현하고자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며 "단지가 사건에서 이번 영화의 영감을 얻었을 뿐"이라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영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상영된 이 영화는 편집 없이 원 컷으로 촬영·편집했다. 한 장소에서 수많은 캐릭터들을 보여주며 이번 작품 역시 사회적 정의와 공정함이 무엇

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과 같은 무대구성과 배우들의 연기로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평온한 주말 오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은 외국인과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나누어 각각의 방에 갇힌다. 외국인들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고, 방글라데시 사람 역시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심판 당한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테러리스트에게 반항을 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무슬림(이슬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일지라도 죽임을 당하고 만다. 대학생과 26세의 미혼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약혼남, 아들과 아버지, 병어리, 테러리스트의 어린 시절 친구의 아버지 등 인물들마다의 스토리도 다양하다. 총성이 오가고 피투성이의 시체가 널브러진 상황에서도 테러리스트의 어린 시절을 지켜본 한 인질은 그가 제대로 크지 못했음에 기성세대를 대표해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긴장감이 팽도는 와중, 2층에서 어린 아이가



'새터데이 에프터눈' 한 장면.

발견되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양이 된다. 테러리스트들이 증오한 인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힌 것. 아버지의 희생으로 남은 인질들은 모두 풀려나고, 그는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 뉴스에서는 진짜 인도 사람의 생존자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대신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진정한 이슬람의 정신이라며 생을 마감한다. 영화는 한 장소에서 모든 촬영을 마쳤기에 다소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각 캐릭터들을 조명하고, 관객이 지루함

을 느낄 때 즈음 새로운 자극을 통해 한 순간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 이러한 연출이 가능한 이유는 장소를 구분해 사용했기 때문인데, 3가지 파트로 나눠 카메라 배분을 구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상황을 관객이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장면이 단 한 컷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다. 감독은 컷의 전환을 통해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테러 현장의 공기를 느꼈으면 했다"고 전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정채동 작 '드림의 땅'

작업 공간이 삶의 터

G&J광주·전남 갤러리 누리무리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G&J 광주·전남 갤러리에서 오는 15일까지 누리무리 '삶의 터와 작업의 공간'전이 열린다. 올해로 34회를 맞이한 누리무리 그룹은 순천 출신들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순천, 광주, 서울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순수한 작업 열정으로 예술성을 지키며 현대성과 시대성을 천착하고 있다. 전시 주제인 '삶의 터와 작업의 공간'은 삶의 터가 작업의 공간이 될 때까지 일상의 시간들을 예술의 경험으로 전용해 삶이 예술이라는 명제를 실천하는 열정을 작품에 담아낸다는 의미가 담겼다. 참여작가는 김갑진, 김동석, 김병규, 김홍빈, 박성환, 서광중, 위수환, 장영주, 정채동, 조광익이며 서양화 20점이 전시된다. /이연수 기자



ACC 어린이 공연 '우산 도둑' 13일까지 배리어 프리 서비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오는 11-13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공연 '우산 도둑'을 선보인다. '우산도둑' (연출 김예나)은 지난해 ACC 참여형 어린이공연 쇼케이스에서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스리랑카의 동명 그림동화를 원작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은 배리어 프리의 철학을 담아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요일은 오전 11시, 토요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공연되며 휠체어석은 회당 8석까지 예매 가능하다. /이연수 기자

"희생의 승고함 통해 사랑·희망 메시지 전달"

3번째 BIFF 참여... 현실감에 초점 원테이크 연출

"좌절감에 집중하면서도 모든 요소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스토파 사르와르 파루키 감독은 지난 2009년 '제3의 인생', 2012년 '텔레비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부산국제영화제 참여다. 특히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그해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돼 부산과의 많은 추억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부산 선암프리미어 호텔 3층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작품에 대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 작품은 극우 세력과 이슬람 원리주의의 반발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상영이 금지됐다. 그럼에도 그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는 "하나라도 설정된 것처럼 보인다면 현실감이 무너진다"며 "카메라 움직임 자체에 무지

컬 요소를 섞어 관객이 함께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현실감을 최대치 살리기 위해 그가 선택한 연출법은 원테이크였다. "처음부터 원컷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느낀 숨 막힘 등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었죠. 실수 없이 촬영을 마치기 위해 배우들과 제작진이 한 달 정도 연습을 했어요. 디지털방식의 CG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에 수도 없이 카메라 리허설을 진행했죠." 그 결과 3번의 촬영 만에 82분짜리 영화를 한 컷에 담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장소가 주는 한계도 만만치 않았다. 한 곳에 모든 캐릭터를 놓고 촬영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는 그는 장면과 장면을 구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눴다. 아이를 찾기 위해 2층에 올라갔

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파트1과 메인룸에서 발생하는 파트2, 작은 홀의 파트3 등을 통해 기승전락을 담아냈다. 감독은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편집한다고 생각했기에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균형이 정말 중요했다. 또, 카메라를 통해 음악을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작업했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실화를 보고 영감을 얻었지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 테러리스트들은 여자피 죽으러 올 사람이었고, 실제로는 다 죽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미래를 내다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요. 영화 속에서 테러리스트의 죽음을 다루지 않은 건 그들의 죽음이 저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는 이어 희생양에 서사가 따랐기에 죽음을 맞이했어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관객들에게 인간성과 사랑, 희망을 전달하고자 했기에 테러리스트의 시체를 더더욱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그는 "희생의 승고함을 다룬 이야기가 주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부산=이보람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총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